

1년에 26마리...치킨과 사랑에 빠진 한국인

국내 닭도축 10억 1137만마리...닭고기 수입량 23만 4873 t 역대 최대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 전남 2.43개·광주 2.34개...전국 1~2위 기록

한 집 건너 보이는 치킨집에 한 때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전남지역에서 한 해 얼마나 많은 닭을 먹을까.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내놓은 농업전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닭 도축 마리수는 10억 1137만 마리에 이른다. 지난 2022년 기준 인구(5100만여명)로 나누면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 1인당 평균 20마리 닭고기를 소비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전남에서도 매년 평균 5500만 마리의 닭 도축이 이뤄진다.

여기에 수입 닭고기까지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닭고기 소비량은 26마리 정도로 늘어난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은 23만 4873 t. 지난 1995년 닭고기 수입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량은 78만 9000 t. 국내 생산량(60만 7000 t)을 압도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생산 닭고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닭고기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증가했다. 지난 1970년 소비량은 정육 기준 1.4kg였다. 하지만

국민 간식으로 자리잡으면서 199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 2003년 7.8kg로 5배 이상 폭등했다. 치킨집도 크게 늘면서 한국 자영업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로 집계한 광주지역 치킨집은 798개(2022년 기준). 전년대비 17개 줄었지만 매출액은 1950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8.8%늘었다. 전남에서는 1031로 전년대비 24개 늘었다. 매출액도 2320억원으로 20.4%나 폭등했

다. 치킨 사랑이 옛보이는 수치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2019년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는 전남 2.43개, 광주 2.34개로 전국 주요 시·도 중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닭고기 소비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향후 자급율을 점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입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일조량 감소...광주·전남 마늘·양파 생산 줄었다

광주 양파 1760t 생산...62.6%↓ 전남 양파 13%·마늘 33% 감소

올해 광주·전남지역 마늘과 양파 생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양파 생육기(2~3월) 잦은 강수 등으로 일조 시간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힌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양파 생산량은 1760 t으로 전년(4705 t) 대비 62.6%(2945 t) 감소했다. 통계청은 마늘 농가 535개, 양파 농가 364개를

대상으로 지난 5~6월 현지지를 방문, 실측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작성했다. 광주시 양파 재배면적은 71ha에서 41ha로 43% 줄었고 농지 10a 당 양파 생산량도 6612kg에서 4343kg으로 34.3% 감소했다. 전남도 비슷하다. 전남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이 늘었음에도, 생산성 저하로 인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 올해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6862ha로 전년(6079ha)보다 12.9%(783ha)나 늘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39만 3809 t에서 37만 3914 t으로 5.1%(1만 9895 t) 줄었다. 마늘도 마찬가지로 전남지역 마늘 생산량은 2만 9430 t으로 전년(4만 3850 t)에 견줘 1만4420

t (32.9%) 감소했다. 마늘 재배면적도 3443ha로 1년 전보다 15.2% 줄었고 10a 당 생산량도 855kg으로 20.8% 줄었다. 광주·전남지역 마늘과 양파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생육기인 올 2~3월 잦은 강수 등으로 누적 일조시간이 대폭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강수량은 102.66mm로 평년(27.5~44.9mm)보다 2~4배 많은 비가 내렸다. 강수일수는 13.2일로 평년(6.1일)보다 2배 이상 많았다. 3월 강수량도 65.3mm로 평년을 소폭 상회했다. 지난 2~3월 누적 일조시간은 305시간으로, 전년 동기(413.9시간) 대비 26.3% 줄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 농수산물식품, 두바이 식탁에...남도 상설매장 개장

남도 브랜드 쌀·김 등 21개 제품

중동 두바이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매장이 생겼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지난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물식품 상설매장을 마련, 남도 브랜드 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 천사고메는 두바이(3개), 아부다비(1개)에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 한인마켓으로, 곡성의 브랜드 쌀인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 김 등 21개 남도 제품을 판매한다. 중동지역에서는 처음 마련된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매장으로,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그램, 탈라브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를 시작한다. 그동안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했던 만큼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에 따른 안정적인 남도 농수산물식품 공급이 가능해져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장식에 참석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중동지역 판매망이 새롭게 마련됐다. 전남도는 최근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남도 농·수산물식품 상설매장을 마련하고 남도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 <전남도 제공> 한편, 전남도는 지난 7월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하는 등 13개국 32개소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 군서농협 '벼 대신 논콩' 재배로 1억5조 효과

쌀 수급 안정·생산비 절감·식량자급률 제고 등...판매액 9억원

영암 군서농협이 벼 대신 논콩을 으로 쌀 수급 안정과 노동력 부족 해소,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향상, 식량자급률 제고 등 1억 5조의 효과를 올리는 있어 화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군서농협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해 54ha에 달하는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올해는 65ha를 재배하고 있다. 군서농협은 소비자의 식품관 변화로 쌀 소비량 감소와 이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농촌 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콩 재배를 선택했다. 논콩 재배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재배 기술이 부족해 990㎡(300평당) 생산량이 210kg에 그쳤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직면했다. 군서농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지역에 규모화, 집단화된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직접 트랙터와 콤팩트 등 7대(7대)와 전문인력 3명을 확보했다. 논갈이부터, 파종, 병해충 방제, 수확, 건조, 판매까지 일괄 대행하고 모든 비용과 수익을 공동 생산하는 선진화된 영농 대행 시스템도

구축했다. 전문인력이 포장을 관리하고 농작업을 대행하면서 생산비는 기존보다 약 15%가량 절감됐다. 그 결과 990㎡당 생산량은 재배 초기보다 무려 180kg이 증가한 390kg에 달했다. 생산된 콩의 판로도 안정적이다. 지난해 생산된 179톤 전량을 농협이 직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판매했다. 판매액 약 9억원의 조합원에게 공동 정산해 지급했다. 논콩 2ha를 재배하는 조합원 윤순석(65) 씨는 "논콩 재배 소득이 벼 재배 소득보다 1300만 원이나 높은 2500만 원이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현규 조합장은 "논콩이 군서농협을 대표하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논콩 일괄 영농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배 면적을 100ha까지 확대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현대화된 선별 시설까지 구축해 전국 최고의 논콩 재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서농협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aT, 여름철 비축농산물 운송·보관관리 간담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여름철 비축농산물 운송·보관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축농산물 운송·보관 전문인력, 전국 14개 비축기지와 민간 임차 창고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및

경로 피해 예방 요령 등을 교육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우선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비축농산물을 운송 및 보관하는 방법으로 ▲품목별 적정 온도·습도 관리 ▲집중 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철저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